

전주시 종교관광 정책, 종교편향 파문

전주교 380억, 개신교 125억... 불교는 순례길 정비만 지역 불교계 반대추진위 구성, 반대 활동 돌입 예고

전주시(시장 송하진)가 종교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중 기독교계에만 예산을 배정하는 등 종교편향 정책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7월 25일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전주교 '평화의 전당' 건립에 380억원, 개신교 '근대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계획 중 불교와 원불교는 순례길 정비 사업에만 포함됐다.

이런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대불청, 대불련, 전북불교시인연대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신행단체들은 7월 3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불교단체는 이날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튿날 시 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및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불자는 "이웃종교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책이 이대로 집행되면 불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후백제 전주의 비보 사찰로 창건된 사고사(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진북사)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다"며 "천년 전주의 비상이 아니라 백년 전주로의 나라이다"고 전주시의 정책을 비꼬았다.

조영호 전주시 관광마케팅 팀장은 "불교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은 이미 각 종교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주시는 불교, 원불교, 전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도교, 유교 등 6대 종교의 성지와 문화 등을 묶어 전주를 종교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교의 치명자산성지·전동성당과 개신교의 서문교회·예수병원·신원학교, 불교의 남고사·동고사·정혜사·승암사, 원불교의 교동교당, 천도교의 동학혁명기념관·완산공원, 유교의 전주향교 등 6대 종교의 종교자원과 역사를 바탕으로 종교관광지가 조성된다.

2011년 확정된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12~16년)의 주요핵심사업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문화관광거점 육성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전주교 '치명자산 종교명소화사업'을 위해 승암산(치명자산) 일대 56,093㎡(16,968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190억원, 지방비 95억원, 민자 95억원)을 들여 '세계평화의 전당'을 건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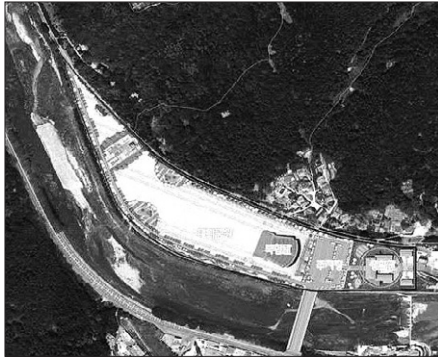
지난 2012년 11월 9일 열린 2012 세계유산대회. 당시에 순례길에 불교성지는 4곳만 포함돼 구색 맞추기만 지적이 있었다.



근대 선교역사기념관 부지

다.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는 평화랜드 조성 및 시복시성예 맞춰 예상되고 있는 교황의 방한시 전주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수병원 어린이집 인근 1,800㎡의 부지에 연면적 4,4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25억 원(국비 62억 5000만 원, 지방비 민자 62억 5000만 원)을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4400㎡의 '근대 선교역사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구상도

이외에도 천도교 동학혁명기념관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에 13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민자 1억원)을 투자해 한옥형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의 남고사 동고사 정혜사와 원불교의 교동성당, 유교의 전주향교의 순례길 정비사업은 순례길 정비사업만 언급되어 있다.

전주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1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명상 힐링공간 광주에 마련

자비명상 7월 19일 광주지부 개설

불교적 명상을 통한 힐링공간이 광주에 마련됐다.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7월 19일 광주 동구 소태동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에 '자비명상 광주광역시지부'를 개설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지도자, 광주불교 교직원 동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비명상은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장 빨리 발견하는 방편으로 자신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마음과 경험을 풀어냄으로써 '소중함 나'를 찾아하는 길"이라며 "자비명상을 통해 자기긍정과 자신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확대



무진 스님(가운데)이 현판식에서 밝게 웃고있다.

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광주지부장으로 임명된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비명상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비명상 광주지부는 향후 지역민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나눠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호국 금강사 신축 기공식

광주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군법당 호국 금강사는 8월 1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각 군법당 주지와 비행단 단장 홍재기 준장, 김윤재 전 공군참모총장 등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운 신축 법당은 광산구 황룡동 1번지에 3,800㎡의 부지에 건축면적 757㎡의 넓이에 대웅전 1동과 생활동 2동이 건설되며, 총공사비는 23억원을 투자된다.

법당에는 211㎡(64평)의 기도공간과 방송실, 창고, 방풍실이 설치되며, 생활동에는 침실, 다실, 식당, 다용도실, 북카페, 총무실, 직감실, 어린이방, 식당 등 신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배분되어 건축된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공군병사와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건설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군종교구에 참여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운 신축 법당을 광산구 황룡동 1번지에 3,800㎡의 부지에 건축면적 757㎡의 넓이에 대웅전 1동과 생활동 2동이 건설되며, 총공사비는 23억원을 투자된다.

법당에는 211㎡(64평)의 기도공간과 방송실, 창고, 방풍실이 설치되며, 생활동에는 침실, 다실, 식당, 다용도실, 북카페, 총무실, 직감실, 어린이방, 식당 등 신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배분되어 건축된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공군병사와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건설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군종교구에 참여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운 신축 법당을 광산구 황룡동 1번지에 3,800㎡의 부지에 건축면적 757㎡의 넓이에 대웅전 1동과 생활동 2동이 건설되며, 총공사비는 23억원을 투자된다.

한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1949년 10월 1일 공군 창군과 함께 여의도에서 창설된 최초의 비행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박물관 여름 박물관 이야기 개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전통가옥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름! 박물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여름! 박물관 이야기 - 옛 사람이 살던 집'은 우리의 전통 가옥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문화에서 집이 어

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체험교육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8월 7~28일 매주 수요일 국립광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 가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 개최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7월 28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김진수 전 전북지역단장의 지역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에 이어 어린이 청소년팀(팀장 정현웅), 홍보전략팀(팀장 백덕기)의 분야별 사례발표에 이어 주정

기 단장의 각 팀에 대한 활동평가가 이어졌다.

김진수 사무국장은 "분야별 연수교육을 통해 포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포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참종은우리절, 담마토크 진행



전주 참종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28일 '대중이 대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담마(法談)토크를 개최했다. 담마토크는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수행생활 중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스님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쌍방향 형식의 상담코너다.

담마토크에는 조계종 청정승가 대중결사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성원 스님(거제 금강사), 통출 스님(솔바람 대표),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 등이 나섰다. 한편 참종은우리절 신도들은 청정승가 대중결사 스님들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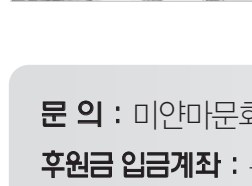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